방청제 시장 활기 되찾아

8개사 공동생산 · 판매 결정…급수용 방청제 8500톤 과잉

국내 급수용 방청제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기업에 따르면 음료수 계통의 배관을 비롯한 냉온수라인의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방지할 수 있는 용수 처리제인 방청제 시장이 8개 방청제 생산기업의 공동생산, 판매 결정으로 공급과잉, 가동률 저조, 가격덤핑 및 품질 · 사후관리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 급수용 방청제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내 급수용 방청제 시장은 지금까지 수요가 약 1400~1500톤(60억원 정도) 규모로 한정돼 있는데 허가기업은 8개로 난립, 각사마다 100% 가동시 1만톤이 생산되어 약 8500톤이 공급과잉 상태였다.
따라서 방청제 소비자가격이 92년 KG당 4500원에서 93년 6월 현재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특히, 품질인증이 없는 방청제가 시장에 나돌면서 가격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청제 수출 · 입 현황 (단위 : M/T, 1000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1~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 출	89.1	95.4	297.2	367.1	48.7	62.9	3.0	9.5
수 입	234.6	610.9	431.3	1,102.5	436.3	1,389.8	123.8	489.2
합 계	323.7	706.3	728.5	1,469.6	485.0	1,452.7	126.8	498.7

또, 급수용 방청제는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에만 급급, A/S는 뒷전인 상태였다.
그러나 급수용 방청제를 생산하는 8개사가 공동으로 5월말부터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공동생산 및 판매를 결정, 현재 음성공장을 시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8월 중순부터 제품이 출하될 예정으로 있어 건전한 거래행위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방청제 생산조합 결성으로 KG당 4500원선을 유지하면서 검사제도도 부활, 소비자 요구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25%정도의 시장을 점유해 온 경인(대표 성낙인)은 방청제(Hestia W)를 세정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직접 세정작업을 실시해 수요처에 판매했으며, 포장은 20~25KG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삼정화학(대표 이성호)은 자체 세정설비를 보유, 1년간 공급계약을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는데 방청제 VESTAW(25KG)는 아파트, 빌딩, 호텔 및 병원 등의 부식 및 녹물방지용으로, VESTAL(20ℓ)는 온수 보일러 급탕기, 냉난방의 배관설비 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3/9/6>